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끼치다’와 ‘미치다’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생활 태도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끼쳤다}.”와 같은 경우에는 ‘미치다’와 ‘끼치다’ 중 어떤 말을 써야 합니까? 혹시 ‘끼치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쓰이는 말이 아닌가요?

(유민석,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답 “아버지의 생활 태도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와 “아버지의 생활 태도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미치다’는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라고 뜻풀이되어 있고, ‘끼치다’는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라고 뜻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미치다’와 ‘영향을 끼치다’라는 표현은 모두 가능합니다.

‘끼치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쓰인다고 하는 것은 ‘끼치다’가 주로 ‘심려를 끼치다’, ‘불편을 끼치다’, ‘걱정을 끼치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우에 ‘끼치다’ 대신에 ‘미치다’를 쓰지 않는 것을 보면 ‘끼치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쓰이고 ‘미치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 영화계에 끼친 공로는 엄청나다.”와 같은 예문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보면 ‘끼치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쓰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향을 미치다’와 ‘영향을

끼치다’에서 ‘영향’이라는 단어 자체에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하는 판단에 따라 ‘미치다’와 ‘끼치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생활 태도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끼쳤다.}”에서 ‘미치다’와 ‘끼치다’는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물음 “행사 차량 이외는 출입을 금함.”에서 밑줄 친 ‘이외’ 대신에 ‘외’를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때의 ‘이외’는 “이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때의 ‘이외’와 어떻게 다른가요?

(최수빈, 인천시 남구 주안동)

답 “행사 차량 이외는 출입을 금함.”이나 “행사 차량 외는 출입을 금함.”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외(以外)’와 ‘외(外)’는 모두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밖이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또한 쓰임도 같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以外)’와 ‘이, 그, 저’의 ‘이’와 ‘외’가 결합한 ‘이 외’를 혼동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둘은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때의 ‘이 외에’는 ‘이것 외에’라는 뜻으로, 지시대명사 ‘이’와 의존 명사 ‘외(外)’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명사 ‘이외(以外)’가 쓰인 경우이므로 ‘이’와 ‘외’를 띄어 쓰지 않습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가) 지시 대명사 ‘이’에 ‘외’가 이어진 구성은 문장의 앞에 나오는 반면에, ‘이외(以外)’는 항상 명사 다음에 나온다.
- (나) ‘이 외’는 ‘이’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이외’는 ‘이’를 생략하고 ‘외’만을

사용해도 의미에 차이가 없다.

(다) ‘이 외’의 ‘이’ 대신에 ‘이것’을 바꿔 쓸 수 있지만, ‘이외’의 ‘이’는 ‘이것’과 대치해 쓸 수 없다.

아래의 예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ㄱ. 종이와 연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ㄴ. 종이와 연필이 준비되었습니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ㄷ. 종이와 연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 (2) ㄱ. 몇 끼를 굶었더니 먹을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ㄴ. 몇 끼를 굶었더니 먹을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ㄷ. 몇 끼를 굶었더니 먹을 것 이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물음 “열네째 줄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열네째 줄이 맞습니까, 열넷째 줄이 맞습니까?

(박자숙,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답 ‘열넷째 줄’이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6 항을 보면 의미에 따라 ‘둘째/두째’, ‘셋째/세째’, ‘넷째/네째’로 구분하던 것을 ‘둘째’, ‘셋째’, ‘넷째’의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쓰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가운데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이 있던 것을 한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두째’로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앞에 다른 수사가 올 때에는 받침 ‘ㄷ’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마흔두째……’라고 씁니다.

‘열넷째’는 ‘열두째’와 같이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열넷째’라고 쓰면 됩니다. ‘열한째, 열두째, 열셋째, 열넷째……’가 맞는 표기입니다.

물음 《훈민정음》에 보면 ‘世宗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世宗’을 [생종]으로 읽은 건가요?

(허경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답 아닙니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생종’은 [세종]이라고 읽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당시에는 ‘ㅇ’과 ‘ㅇ(옛이응)’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ㅇ’은 초성 글자로 쓰일 때는 그 쓰이는 환경에 따라 아무 소리도 나타내지 않거나 목에서 나는 울림소리([ŋ])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종성 글자로 쓰일 때는 아무 소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리도 나타내지 않는 ‘ㅇ’을 종성 글자로 쓴 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한자음을 적을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글자를 모두 갖추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종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음가가 없는 종성 글자 ‘ㅇ’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 밑에 음가가 없는 ‘ㅇ’을 받쳐 적은 것입니다. 이는 고유어인 ‘나랏말씀’을 ‘낭랏말씀’으로 쓰지 않은 것과 비교가 됩니다. 반면에 ‘ㅇ(옛이응)’은 초성에서건 종성에서건 관계없이 언제나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울림소리([ŋ])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ㅇ’은 그 글자가 사라지고 ‘ㅇ’만 남아서, 이 ‘ㅇ’이 초

성 글자로 쓰일 때는 아무 소리도 나타나지 않으며 종성 글자로 쓰일 때는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울림소리([ŋ])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글자의 음가와 쓰임새를 잘 모르는 현대인들로서는 ‘생종’의 ‘ㅇ’이 받침으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생종]으로 읽어야 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世宗’의 한자음을 적은 ‘생종’에서 받침으로 쓰인 ‘ㅇ’은 아무 소리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종]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음 “이 손 뉘! 이 손 노라니까!”라고 할 때 밑줄 친 ‘뉘’와 ‘노라니까’는 ‘놓아’, ‘놓으라니까’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창민, 부산시 중구 광복동)

답 “이 손 뉘! 이 손 놓으라니까!”가 맞습니다. ‘뉘’는 ‘놓아’가 줄어든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35 항을 보면 ‘놓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인 ‘-아, -아서, -아라, -았다’ 따위가 연결되면 ‘뉘’로 줄여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 놓다: 놓-아(→뉘), 놓-아서(→뉘서), 놓-아라(→뉘라),
 놓-았다(→뉘다)

그러므로 “이 손 뉘!”의 ‘뉘’는 ‘놓아’가 줄어든 말이므로 바른 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 노라니까!”의 ‘노라니까’는 옳지 않습니다. ‘놓으라니까’는 ‘노라니까’로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ㅎ’ 받침이 있는 ‘놓다’, ‘놓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2) 좋다: 좋-아(↗좌), 좋-아서(↗좌서), 좋-았다(↗좌다), 좋-은(↗존)
- (3) 낳다: 낳-아(↗나), 낳-아서(↗나서), 낳-았다(↗났다), 낳-은(↗난)

(2)와 (3)을 보면 ‘놓-’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침의 ‘ㅎ’이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라니까’는 ‘놓으라니까’로 써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동생이 갖다 논 과자(×) → 동생이 갖다 놓은 과자(○)

‘갖다 놓은’을 줄여서 ‘갖다 논’이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놓은’이 ‘존’으로 줄지 않고 ‘낳은’이 ‘난’으로 줄지 않듯이 ‘갖다 놓은’ 또한 ‘갖다 논’으로 줄여 써서는 안 됩니다.

☞ 백화점에 가면 ‘가격 세일’과 ‘가격 인하’란 말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세일’과 ‘인하’는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강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 ‘가격 세일’과 ‘가격 인하’의 ‘세일’과 ‘인하’는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세일: 할인하여 판매함. ‘바겐세일(‘싸게 팔기’, ‘할인 판매’로 순화)’의 준말.
(예) 봄맞이 세일, 세일 기간에 산 물건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인하: 가격 따위를 낮춤. ‘값 내림’, ‘내림’으로 순화.
(예) 공공 요금의 인하, 휘발유 가격 인하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

‘세일’과 ‘인하’의 뜻을 비교해 보면 ‘세일’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고 판매하는 것’이고, ‘인하’는 ‘가격 따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세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원래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준다는 의미가 있고, ‘가격 인하’는 생산 원가의 감소 등의 여러 이유로 그 물건 값을 내려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산 기술의 발달로 생산 원가가 줄었을 때에는 ‘가격 인하’라는 말을 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남은 물건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때는 ‘세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하’가 값을 내린다는 의미이므로 세일 기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요금의 인하, 휘발유 가격 인하’와 같은 경우는 ‘세일’을 쓰는 것이 어색합니다. 공공 요금이나 휘발유의 경우는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만 값을 싸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가격 세일’과 ‘가격 인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